노 동 정 책 연 구
2017. 제17권 제4호 pp.31~5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구논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김 나 영**

맞벌이 부부에게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특히 자녀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출산 및 육아휴가휴직 등 다양한 양육시간 지원정책들을 포함, 어떤 요인들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확보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1,035명의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및 출산·육아휴가휴직제도 사용여부, 정책 이용 만족도, 노동·자녀돌봄·가사돌봄시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녀의 모(母)와 부(父),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모(母)와 부(父) 간에 발생하는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녀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의 크기도 모(母)와 부(父)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자녀돌봄, 맞벌이 부부, 돌봄시간

논문접수일 : 2017년 9월 6일, 심사의뢰일 : 2017년 9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7일

*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 2016)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nayoung7@gmail.com).

I. 서 론

우리나라 정부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나아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육친화(또는 육아지원)정책을 시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지원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구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고(再考)는 시급하다 하겠다. 즉, 과거와는 달리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정부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육아지원을 위한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 외에도 실질적인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기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44.0%를 차지하고 있는데(통계청, 2015), 자녀 양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구에게는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정책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OECD 회원국[1]의 수준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이들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고, 이로 인한 시간정책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이지선, 2012).

또한 맞벌이 부부의 여성은 장시간 근로와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가사노동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특히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

1) 2011년 현재 OECD 평균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7%임.

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간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들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시간정책 수요자-맞벌이 부부의 부(父) 또는 모(母)-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이영욱(2014)은 James-Burdumy 모형을 응용하여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시간배분을 살펴보고자 여성의 전체 시간을 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여성의 효용은 소비, 여가시간, 자녀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연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정책집단(treatment group, 0～만 2세)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만 3～4세)으로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발생하게 된 보육기관 이용비용 감소가 보육기관 이용과 여성의 시간사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보육기관 이용비용의 감소로 기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영아에 대한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고학력 여성과 고소득 가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만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직접 자녀돌봄시간은 보육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 저학력 여성의 경우 통제그룹(만 3～4세)에 비해 뚜렷이 감소하였지만,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육료 감소가 여성의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학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보육료 감소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보육료 지원 변화가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중저소득, 중고

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직접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보육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 뚜렷이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 가구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차분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loemen & Stancanelli(2014)의 연구는 프랑스의 '시간사용 조사(time-use survey)(1998～1999)' 자료를 사용하여 부부간의 시간배분과 이에 대한 소득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부부의 시간 사용을 임금근로, 자녀돌봄, 가사돌봄, 그리고 여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부부의 시간 사용을 이용함으로써 가구 내에서 배우자 간에 시간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Simulated Maximum-Likelihood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임금은 여성의 노동시간에 음(-)의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임금은 본인의 노동시간에는 양(+), 자녀돌봄과 가사돌봄에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sa-Poza et al.(2001)는 1997년 스위스 노동인구 조사(1997 Swiss Labour Force Survey)를 이용하여 자녀와 가사돌봄에 대한 시간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시간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였다.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는 자녀와 가사돌봄의 시간배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사회, 경제, 인구적인 요소들이 시간배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이론적 배경

가구는 그들의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하에서, 가능한 시장재화(market goods) 조합을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한다. Becker(1965)는 이러한 전통 이론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였는데, 1) 가구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재화는 기존 이론에서 제시하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만이 아닌,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투입요소(input), 즉 원자재(原資材, commodities)까지도 효용극대화를 위해 소비하는 재화로 고려하고, 2) 나아가서 이러한 '소비가능한 원자재'의 집합을 확장하

였다. 이렇게 확장된 원자재의 집합에는 '시간(time)' 개념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는 시장재화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일정 수준의 '시간'을 원자재라고 보고, 시간소비 역시 개인의 효용함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이는 개별 가구가 효용을 극대화함에 있어 예산에 대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사돌봄이나 자녀돌봄은 가구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home good)로 보며, 따라서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시간은 무급노동시간(unpaid work hour)으로 정의된다(Sousa-Poza et al., 2001).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父) 또는 모(母)의 효용함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max U = U(X, L, H, C) \tag{1}$$

X는 재화, L은 근로시간, H는 여가시간, C는 자녀돌봄시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효용은 X, L, H, 그리고 C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은 시장노동 L, 자녀돌봄(무급노동) C , 여가 H에 대한 시간으로 각각 나누어진다고 보고,

$$L + C + H = 24 \tag{2}$$

로 쓴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가구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자녀돌봄으로 한정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시간으로 본다. 또한 예산제약식은

$$P_x X + P_i I = wL + B \tag{3}$$

과 같이 쓸 수 있는데, w는 임금(wage), B는 부(父) 또는 모(母)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이며,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I는 부모 외 개인 혹은 기관의 자녀돌봄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비용을 P_i로 본다.

Ⅳ.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0~만 5세)를 둔 1,035명[2]의 취업부모(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3]. 조사응답자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모(母) 또는 부(父)로 한정하였다. 이때 자녀의 모(母) 또는 부(父)는 동일 가구 내의 모(母) 또는 부(父)가 아닌 독립적인 맞벌이 가구 내의 자녀의 모(母) 또는 부(父)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모(母)가 응답자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인 자녀의 부(父)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하게 하고 이를 '배우자' 항목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모(母)와 부(父)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취학자녀 수와 해당 자녀의 연령 등 자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며,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종사상 지위, 직종, 사업장 규모, 출퇴근 시간 등 응답자의 직장관련 문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시간정책(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과 휴가휴직제도) 사용여부, 정책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관련, 시간배분(노동, 자녀돌봄, 가사돌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2. 분석방법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이용하여,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은 물론, 분석을 두 집단−자녀의 모(母)와 부(父)−으로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부 563명, 모 472명임.
3) 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을 활용.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응답자가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주중(혹은 주말) 하루 평균 자녀돌봄(밥먹이기, 목욕, 숙제돌봐주기, 놀아주기 등)에 투입한 시간은 얼마인가를 주관적으로 기입하게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델은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모델에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변수인 연령, 최종학력, 미취학자녀 수와 해당 자녀의 연령 변수를 포함하고, 그 외에 근로시간 및 형태, 근로기간, 직장유형, 종사상 지위, 거주지역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근로시간은 모(母)와 부(父) 각각에 대하여 하루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시간제,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장유형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조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직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그리고 기타(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포함)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근로기간은 모(母)와 부(父)에 대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현재까지의 총 근로기간을 조사하였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이들 독립변수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에 '현(現) 직장의 시간정책의 유무'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때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제도가 현 직장에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정책변수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모델 3은 시간정책에 대한 '과거 직장 포함의 이용 경험 유무'와 '배우자의 시간정책 경험 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의 실제적인 정책 경험이 자녀돌봄시간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또한 모델 3에서는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분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기관 및 개인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육아지원 서비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친인척,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등을 포함시켰고, 이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함

으로써 개별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양육지원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 육아서비스를 평일 총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부모 이외의 양육서비스가 돌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자녀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주말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자녀 부(父)에 대해서도 주중 자녀돌봄시간과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중에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주말에 보다 집중적인 돌봄시간을 보낼 것이 예상되는 등 주중의 시간정책 사용이 주말의 부모 시간사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Ⅴ. 분석결과

조사대상의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모(母)는 35.9세, 부(父)는 38.3세이며, 평균 자녀수는 1.64명이다. 학력을 보면, 모(母)와 부(父) 모두 대졸자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약 6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 종사하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 세, %, 명)

자녀 변수	연령	0세	15.4(159)
		만 1세	15.9(165)
		만 2세	16.0(166)
		만 3세	17.4(180)
		만 4세	17.4(180)
		만 5세	17.9(185)
		평균(세)	2.59

〈표 1〉의 계속

자녀 변수	현재 자녀 수	1명	46.6(482)
		2명	45.9(475)
		3명	6.2(64)
		4명 이상	1.4(14)
		평균(명)	1.64
가구 변수	가구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하	5.3(55)
		500만 원 이하	38.4(397)
		700만 원 이하	34.7(359)
		900만 원 이하	11.5(119)
		900만 원 초과	10.1(105)
		평균(만 원)	649.26
	거주지역	대도시	65.5(678)
		중소도시	30.0(310)
		읍면지역	4.5(47)
부모 변수		모	부
연령	10대	0.3(3)	0.4(4)
	20대	6.7(69)	1.2(12)
	30대	71.3(738)	55.7(576)
	40대	21.7(225)	42.5(440)
	평균(세)	35.93	38.32
최종학력	고졸 이하	8.8(91)	6.5(67)
	대졸	77.1(798)	74.8(774)
	대학원 이상	14.1(146)	18.7(194)
직장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16.8(174)	16.8(174)
	민간기업	74.4(770)	74.4(770)
	기타	8.8(91)	8.8(91)
근로시간형태	전일제	79.2(820)	94.7(980)
	시간제	18.8(195)	3.2(33)
	기타	1.9(20)	2.1(22)
출퇴근시간	30분 이하	45.1(467)	32.1(332)
	1시간 이하	30.4(315)	34.1(353)
	1시간 30분 이하	16.4(170)	20.7(214)
	1시간 30분 초과	60.2(1035)	13.1(136)
	평균(분)	60.2	72.0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34.6(358)	21.8(226)
	30~100인 미만	21.2(219)	19.0(197)
	100~300인 미만	17.9(185)	20.8(215)
	300~500인 미만	7.9(82)	14.0(145)
	500~1,000인 미만	7.0(72)	7.8(81)
	1,000인 이상	11.5(119)	16.5(171)

〈표 1〉의 계속

종사상지위[1]	자영업주	3.9(40)	6.6(68)
	고용주	2.0(21)	3.1(32)
	상용근로자	78.7(815)	85.0(880)
	임시근로자	10.3(107)	2.1(22)
	일용근로자	2.3(24)	1.8(19)
	무급가족종사자	0.5(5)	0.3(3)
직종	관리자	5.74(59)	12.52(1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02(144)	16.89(174)
	사무직	56.77(583)	47.18(486)
	서비스직	14.41(148)	7.38(76)
	판매직	1.95(20)	3.30(34)
	기타[2]	7.11(73)	12.72(131)
종속변수	자녀돌봄 평균시간 주중	3.84	1.90
	자녀돌봄 평균시간 주말	4.88	2.89

주: 1) 잘 모름: 모 2.2%(23명), 부 1.1%(11명).
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군인 포함).

1.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 모(母)

자녀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델1에서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 유의수준에서 미취학자녀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자녀돌봄시간은 0.196시간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의 모(母) 경우, 민간기업 종사자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보다 자녀돌봄시간이 1.115시간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父)가 민간기업에 종사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종사할 경우보다 자녀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이 0.652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의 직장종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종류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종사할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확보가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부(父)가 시간제로 일할 경우, 전일제에 종사하는 자녀의 모(母)는 주중 자녀돌봄시간이 1.460시간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시간 사용이 유연할 경우 다른 한 쪽의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모델 1에 포함되었던 독립변수들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부(父)의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기타로 분류된 직종보다 0.723만큼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된 시간정책 변수 중 현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제가 헌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주중 모(母)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차출퇴근제와 재량근로시간제는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시간근로제, 출산전후휴가제, 육아휴직제 각각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경험은 1.175시간만큼 주중 모(母)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이용경험의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유경험인 경우 주중 모(母)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모(母)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주중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3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 모(母)의 총 근로기간이 1개월 증가하는 경우와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각각 0.005, 0.822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자녀 부(父)의 연령,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의 이용은 주말 자녀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주말 모(母)의 자녀돌봄시간은 0.144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 부(父)

자녀 부(父)의 주중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자녀 모(母)에 대한 분석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먼저 모(母)의 경우와 달리 종사상지위, 평균월소득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모(母)의 경우 유의미했던 본인의 근로시간과 직장유형은 부(父)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상지위(무급가족종사자), 평균월소득, 자녀 모(母)의 근로시간형태 등은 모델 전반에 걸쳐서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모(母)의 근로시간 형태가 시간제일 경우, 전일제보다 자녀 부(父)의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3의 경우 -0.704만큼 감소). 또한 그 크기는 매우 작지만 자녀 모(母)의 평균월소득 증가는 자녀 부(父)의 자녀돌봄시간에 양(+)의 영향을 주었고, 본인(자녀 부(父))의 평균월소득 증가는 자녀돌봄시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정책의 영향을 모델 3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시간근로제가 현 직장에 있을 경우, 자녀돌봄시간에 양(+)의 영향을 준다. 배우자가 단시간근로제나 출산전후휴가제의 유경험자인 경우, 비경험자일 때보다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우자가 재량근로시간제 유경험자일 경우에는 비경험자보다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父)의 주말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델 3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부(父)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은 -0.140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민간기업에 종사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0.664시간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본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주말 자녀돌봄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본인의 연령 증가는 주말 자녀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보면, 부(父)의 직종이 전문가 및 관련 직종이거나 사무직일 경우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정책의 효과를 보면, 과거 직장의 경험을 포함하여 단시간근로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출산휴가 유경험과 배우자의 단시간근로제 유경험은 부(父)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 : 자녀의 모(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미취학자녀 수	-0.040 (0.223)	-0.093 (0.224)	-0.134 (0.235)	-0.245 (0.258)	-0.188 (0.260)	-0.161 (0.273)
미취학자녀 연령	-0.196*** (0.074)	-0.199*** (0.074)	-0.229*** (0.079)	-0.305*** (0.086)	-0.303*** (0.086)	-0.299*** (0.092)

〈표 2〉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하루 평균 근로 시간	모(母)		0.433*** (0.049)	0.427*** (0.049)	0.419*** (0.049)	0.407*** (0.056)	0.395*** (0.057)	0.381*** (0.057)
	부(父)		-0.135*** (0.045)	-0.121*** (0.045)	-0.111** (0.046)	-0.063 (0.052)	-0.061 (0.052)	-0.078 (0.053)
직장 유형[1]	모	민간기업	-1.115*** (0.321)	-1.105*** (0.325)	-1.079*** (0.327)	-0.589 (0.371)	-0.651* (0.377)	-0.791** (0.379)
		기타	-0.422 (0.497)	-0.463 (0.504)	-0.340 (0.506)	-0.193 (0.576)	-0.256 (0.585)	-0.354 (0.587)
	부	민간기업	0.652** (0.327)	0.671** (0.335)	0.597* (0.336)	0.428 (0.379)	0.327 (0.388)	0.258 (0.389)
		기타	0.104 (0.533)	0.096 (0.540)	0.053 (0.541)	-0.069 (0.617)	-0.236 (0.626)	-0.135 (0.627)
종사상 지위[2]	모	임시근로자	-0.056 (0.431)	-0.129 (0.432)	-0.071 (0.433)	0.125 (0.499)	0.055 (0.501)	-0.011 (0.502)
		일용근로자	0.848 (0.792)	0.837 (0.797)	0.525 (0.808)	-0.488 (0.917)	-0.434 (0.924)	-0.437 (0.937)
		무급가족종사자	1.133 (1.912)	0.917 (1.918)	0.824 (1.934)	-1.663 (2.212)	-1.600 (2.224)	-1.541 (2.242)
	부	임시근로자	0.643 (0.823)	0.530 (0.825)	0.345 (0.827)	0.521 (0.953)	-0.613 (0.956)	-0.843 (0.958)
		일용근로자	-0.839 (0.883)	-0.826 (0.885)	-0.979 (0.888)	-0.727 (1.022)	-0.588 (1.026)	-0.875 (1.030)
근로 시간 형태[3]	모	무급가족종사자	4.666** (2.178)	4.771** (2.188)	3.708* (2.211)	1.641 (2.521)	1.569 (2.537)	1.752 (2.563)
		시간제	0.883** (0.373)	0.884** (0.375)	0.816** (0.382)	0.482 (0.432)	0.537 (0.435)	0.586 (0.443)
		기타	1.409 (0.959)	1.554 (0.964)	1.568 (0.968)	0.064 (1.110)	0.064 (1.118)	0.300 (1.122)
	부	시간제	-1.460** (0.690)	-1.433** (0.694)	-1.342* (0.698)	0.082 (0.798)	0.117 (0.804)	0.437 (0.809)
		기타	0.505 (0.902)	0.473 (0.904)	0.448 (0.913)	0.586 (1.044)	0.454 (1.048)	0.677 (1.059)
총 근로 기간	모		-0.002 (0.002)	-0.001 (0.002)	-0.000 (0.002)	0.006** (0.003)	0.006** (0.003)	0.005* (0.003)
	부		0.002 (0.002)	0.001 (0.002)	0.001 (0.002)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표 2〉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평균 월소득	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	모		0.005** (0.002)	0.005** (0.002)	0.006** (0.002)	0.003 (0.003)	0.004 (0.003)	0.004 (0.003)
	부		-0.001 (0.002)	-0.00 1(0.002)	-0.001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연령	모		0.000 (0.043)	-0.010 (0.043)	-0.013 (0.043)	0.027 (0.049)	0.026 (0.049)	0.012 (0.050)
	부		-0.035 (0.040)	-0.027 (0.040)	-0.025 (0.040)	-0.077* (0.046)	-0.077* (0.046)	-0.068 (0.047)
최종 학력[4]	모	대졸 이하	0.011 (0.441)	0.098 (0.443)	-0.050 (0.447)	0.174 (0.510)	0.168 (0.514)	0.154 (0.518)
		대학원 이상	-0.153 (0.566)	-0.024 (0.567)	-0.061 (0.571)	0.184 (0.655)	0.243 (0.658)	0.357 (0.661)
	부	대졸 이하	-0.129 (0.526)	-0.138 (0.528)	-0.106 (0.527)	-0.771 (0.608)	-0.731 (0.612)	-0.791 (0.611)
		대학원 이상	0.396 (0.606)	0.358 (0.610)	0.390 (0.611)	-0.538 (0.701)	-0.514 (0.707)	-0.600 (0.709)
거주 지역	모		-0.128 (0.255)	-0.071 (0.256)	-0.021 (0.257)	0.240 (0.295)	0.250 (0.297)	0.254 (0.298)
	부		0.294 (0.564)	0.400 (0.568)	0.283 (0.572)	-0.057 (0.653)	0.019 (0.658)	0.195 (0.664)
직종[5]	모	관리자	-0.847 (0.706)	-0.896 (0.707)	-0.852 (0.707)	-1.084 (0.817)	-1.023 (0.819)	-0.748 (0.82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543 (0.577)	-0.518 (0.577)	-0.511 (0.577)	-0.171 (0.668)	-0.133 (0.669)	0.007 (0.669)
		사무	-0.492 (0.516)	-0.459 (0.516)	-0.421 (0.514)	-0.260 (0.597)	-0.161 (0.598)	-0.028 (0.596)
		서비스	-0.852 (0.551)	-0.800 (0.552)	-0.705 (0.550)	-0.534 (0.637)	-0.541 (0.640)	-0.337 (0.638)
		판매	0.292 (0.920)	0.269 (0.920)	0.508 (0.921)	-0.971 (1.064)	-1.014 (1.066)	-0.544 (1.068)

〈표 2〉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직종[5]	부	관리자	0.183 (0.498)	0.203 (0.500)	0.179 (0.501)	0.460 (0.576)	0.485 (0.579)	0.515 (0.58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228 (0.457)	0.295 (0.459)	0.277 (0.459)	0.525 (0.528)	0.569 (0.532)	0.600 (0.532)
		사무	0.630 (0.404)	0.723* (0.407)	0.739* (0.409)	0.568 (0.468)	0.631 (0.472)	0.577 (0.474)
		서비스	0.599 (0.544)	0.680 (0.545)	0.761 (0.545)	0.891 (0.629)	0.925 (0.632)	0.944 (0.632)
		판매	0.602 (0.703)	0.699 (0.705)	0.585 (0.703)	1.034 (0.814)	1.067 (0.817)	1.012 (0.815)
현직장의 제도 유무	단시간(시간제) 근로제			0.043 (0.283)	0.674** (0.325)		0.265 (0.328)	0.240 (0.377)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0.171 (0.282)	-0.600* (0.337)		0.365 (0.327)	-0.192 (0.390)
	재택근무제			-0.009 (0.345)	-0.143 (0.394)		0.122 (0.400)	0.050 (0.457)
	재량근로시간제			-0.586* (0.337)	-0.827** (0.392)		0.246 (0.390)	-0.038 (0.454)
	출산전후휴가			0.764** (0.298)	0.994*** (0.333)		0.551 (0.345)	0.493 (0.386)
	배우자출산휴가			0.143 (0.253)	0.183 (0.275)		0.047 (0.293)	0.114 (0.319)
	육아휴직			-0.230 (0.262)	-0.201 (0.288)		-0.149 (0.303)	-0.130 (0.33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0.003 (0.293)	-0.226 (0.323)		-0.134 (0.339)	-0.073 (0.374)
(과거 직장 포함) 이용 경험	단시간(시간제) 근로제				-0.901** (0.393)			0.190 (0.455)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0.570 (0.396)			0.681 (0.459)
	재택근무제				0.007 (0.462)			-0.160 (0.536)
	재량근로시간제				-0.299 (0.500)			-0.341 (0.579)
	출산전후휴가제				-0.513* (0.277)			0.177 (0.321)
	육아휴직제				-0.168 (0.297)			-0.065 (0.34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1.175** (0.490)			0.092 (0.568)

〈표 2〉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배우자 이용 경험	단시간(시간제) 근로제			-0.557 (0.374)			-0.443 (0.434)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0.565 (0.350)			0.722* (0.406)
	재택근무제			0.040 (0.441)			0.459 (0.511)
	재량근로시간제			0.969* (0.501)			0.342 (0.580)
	배우자출산 휴가제			-0.220 (0.273)			-0.425 (0.317)
	육아휴직제			0.178 (0.275)			0.543* (0.31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0.646 (0.438)			-0.432 (0.507)
이용 여부	어린이집			0.362 (0.275)			0.303 (0.319)
	유치원			-0.293 (0.280)			0.015 (0.324)
	조부모/친인척			0.144 (0.273)			0.172 (0.317)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0.353 (0.395)			-0.260 (0.458)
	베이비시터(민간)			0.512 (0.420)			0.232 (0.487)
	반일제이상학원			-0.536 (0.415)			0.078 (0.481)
	사설기관(시간제)			0.324 (0.408)			0.822* (0.473)
	개별/그룹지도, 방문학습지등			0.397 (0.378)			0.062 (0.438)
육아서비스이용시간				0.039 (0.030)	5.146*** (1.680)	3.119 (1.913)	0.144*** (0.034)
상수		3.381** (1.451)	3.712** (1.650)	2.368 (2.254)	1000	1000	-1.007 (2.613)
Number of Obs		1000	1000	1000	0.12	0.13	1000
Adj R-squared		0.14	0.15	0.19			0.16

주 : 1) Reference group : 공공기관 및 공기업.
2) Reference group : 상용근로자.
3) Reference group : 전일제.
4) Reference group : 고졸 이하.
5) Reference group : 기타(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군인 포함)).

* p<.1, ** p<.05, *** p<.01.

( )는 표준편차임.

〈표 3〉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 : 자녀의 부(父)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미취학자녀 수			0.149 (0.155)	0.105 (0.156)	0.057 (0.164)	-0.067 (0.188)	-0.070 (0.190)	-0.062 (0.201)
미취학자녀 연령			-0.045 (0.051)	-0.044 (0.052)	-0.059 (0.055)	-0.150** (0.062)	-0.143** (0.063)	-0.140** (0.068)
하루 평균 근로 시간	모(母)		0.067** (0.034)	0.072** (0.034)	0.078** (0.034)	0.037 (0.041)	0.038 (0.041)	0.046 (0.042)
	부(父)		-0.014 (0.031)	-0.007 (0.031)	0.008 (0.032)	0.039 (0.038)	0.040 (0.038)	0.029 (0.039)
직장 유형[1]	모	민간기업	0.105 (0.223)	0.175 (0.227)	0.274 (0.228)	0.230 (0.271)	0.274 (0.276)	0.293 (0.280)
		기타	0.294 (0.346)	0.360 (0.351)	0.523 (0.353)	-0.258 (0.420)	-0.209 (0.427)	-0.141 (0.433)
	부	민간기업	-0.028 (0.228)	0.002 (0.233)	-0.022 (0.233)	-0.719*** (0.276)	-0.697** (0.284)	-0.664** (0.287)
		기타	-0.176 (0.371)	-0.151 (0.376)	-0.093 (0.377)	-0.221 (0.450)	-0.207 (0.457)	-0.066 (0.462)
종사상 지위[2]	모	임시근로자	0.349 (0.300)	0.310 (0.301)	0.325 (0.301)	0.141 (0.364)	0.084 (0.366)	0.079 (0.370)
		일용근로자	0.715 (0.552)	0.667 (0.555)	0.534 (0.562)	0.298 (0.669)	0.368 (0.675)	0.433 (0.691)
		무급 가족종사자	3.623*** (1.331)	3.381** (1.336)	3.465** (1.345)	0.532 (1.614)	0.469 (1.625)	0.583 (1.652)
	부	임시근로자	-0.036 (0.573)	-0.013 (0.574)	0.101 (0.575)	-0.592 (0.695)	-0.577 (0.699)	-0.611 (0.707)
		일용근로자	-0.627 (0.615)	-0.629 (0.617)	-0.583 (0.618)	-0.714 (0.745)	-0.703 (0.750)	-0.790 (0.759)
		무급 가족종사자	5.910*** (1.516)	6.034*** (1.524)	5.277*** (1.534)	3.196* (1.838)	2.983 (1.854)	3.388* (1.884)
근로 시간 형태[3]	모	시간제	-0.647** (0.260)	-0.642** (0.261)	-0.704*** (0.265)	-0.432 (0.315)	-0.394 (0.318)	-0.418 (0.326)
		기타	-1.014 (0.668)	-0.977 (0.671)	-1.013 (0.671)	-0.865 (0.810)	-0.904 (0.817)	-0.888 (0.824)
	부	시간제	-0.389 (0.480)	-0.395 (0.483)	-0.259 (0.486)	0.020 (0.582)	0.073 (0.587)	0.181 (0.596)
		기타	1.769*** (0.628)	1.788*** (0.629)	1.812*** (0.634)	0.563 (0.761)	0.484 (0.765)	0.740 (0.779)

〈표 3〉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총 근로 기간	모		-0.003	-0.002	-0.002	0.001	0.001	0.000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부		0.003**	0.003*	0.003*	0.000	0.000	0.000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평균 월소득	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	모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부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연령	모		-0.021	-0.024	-0.019	-0.023	-0.026	-0.024
			(0.030)	(0.030)	(0.030)	(0.036)	(0.036)	(0.037)
	부		-0.043	-0.040	-0.043	-0.076**	-0.073**	-0.082**
			(0.028)	(0.028)	(0.028)	(0.034)	(0.034)	(0.035)
최종 학력[4]	모	대졸 이하	-0.133	-0.065	-0.164	-0.115	-0.091	-0.163
			(0.307)	(0.309)	(0.311)	(0.372)	(0.376)	(0.382)
		대학원 이상	-0.027	0.040	-0.029	0.089	0.116	0.078
			(0.394)	(0.395)	(0.397)	(0.477)	(0.480)	(0.488)
	부	대졸 이하	0.003	-0.048	-0.060	-0.145	-0.172	-0.255
			(0.366)	(0.368)	(0.367)	(0.444)	(0.447)	(0.450)
		대학원 이상	0.067	-0.007	0.036	-0.218	-0.259	-0.245
			(0.422)	(0.425)	(0.425)	(0.511)	(0.517)	(0.522)
거주 지역	중소도시		-0.360**	-0.344*	-0.268	0.099	0.115	0.132
			(0.178)	(0.178)	(0.179)	(0.215)	(0.217)	(0.220)
	읍면지역		0.363	0.372	0.393	0.040	0.042	0.162
			(0.393)	(0.395)	(0.398)	(0.476)	(0.481)	(0.489)
직종[5]	모	관리자	-0.486	-0.535	-0.574	-1.548***	-1.556***	-1.379**
			(0.491)	(0.492)	(0.492)	(0.596)	(0.598)	(0.6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19	-0.022	-0.015	-0.799	-0.763	-0.699
			(0.402)	(0.402)	(0.401)	(0.487)	(0.489)	(0.493)
		사무	-0.488	-0.497	-0.439	-1.031**	-1.033**	-0.903**
			(0.359)	(0.359)	(0.358)	(0.435)	(0.437)	(0.440)
		서비스	-0.328	-0.307	-0.273	-0.772*	-0.806*	-0.740
			(0.383)	(0.384)	(0.383)	(0.465)	(0.467)	(0.470)
		판매	0.198	0.182	0.164	-1.131	-1.156	-1.076
			(0.640)	(0.640)	(0.641)	(0.776)	(0.779)	(0.787)

〈표 3〉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직종[5]	부	관리자	0.337 (0.347)	0.371 (0.348)	0.342 (0.349)	0.509 (0.420)	0.506 (0.423)	0.520 (0.42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233 (0.318)	0.285 (0.319)	0.334 (0.319)	0.778** (0.385)	0.806** (0.389)	0.878** (0.391)
		사무	0.442 (0.282)	0.485* (0.284)	0.467 (0.284)	0.794** (0.341)	0.806** (0.345)	0.781** (0.349)
		서비스	0.480 (0.378)	0.553 (0.379)	0.618 (0.379)	0.672 (0.459)	0.724 (0.461)	0.716 (0.466)
		판매	1.099** (0.489)	1.119** (0.491)	1.066** (0.489)	0.613 (0.594)	0.590 (0.597)	0.659 (0.601)
현 직장의 제도 유무	단시간(시간제) 근로제			0.131 (0.197)	0.458** (0.227)		0.401* (0.240)	0.264 (0.279)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0.195 (0.196)	-0.335 (0.235)		-0.331 (0.239)	-0.420 (0.288)
	재택근무제			-0.189 (0.240)	-0.343 (0.274)		-0.160 (0.292)	-0.292 (0.337)
	재량근로시간제			-0.511** (0.234)	-0.537** (0.272)		0.000 (0.285)	0.008 (0.335)
	출산전후휴가			0.19 1(0.207)	0.272 (0.215)		0.204 (0.252)	0.271 (0.265)
	배우자출산휴가			-0.093 (0.176)	0.129 (0.204)		-0.087 (0.214)	0.195 (0.250)
	육아휴직			0.080 (0.182)	0.040 (0.200)		0.001 (0.222)	-0.034 (0.2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0.075 (0.204)	-0.166 (0.224)		-0.087 (0.248)	-0.115 (0.276)
(과거 직장 포함) 이용 경험	단시간(시간제) 근로제				-0.233 (0.272)			0.634* (0.334)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0.287 (0.275)			0.161 (0.338)
	재택근무제				0.447 (0.322)			-0.025 (0.396)
	재량근로시간제				-0.334 (0.348)			-0.467 (0.42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0.336 (0.205)			-0.553** (0.252)
	육아휴직				-0.043 (0.198)			0.072 (0.2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0.408 (0.341)			0.299 (0.418)

〈표 3〉의 계속

		주중			주말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배우자 이용 경험	단시간(시간제) 근로제			-0.587** (0.261)			-0.595* (0.321)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0.209 (0.244)			0.358 (0.300)
	재택근무제			-0.331 (0.306)			0.436 (0.376)
	재량근로시간제			0.835** (0.348)			0.520 (0.428)
	출산전후휴가			-0.325* (0.187)			-0.177 (0.230)
	육아휴직			-0.012 (0.203)			-0.024 (0.2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0.195 (0.304)			-0.335 (0.374)
이용 여부	어린이집			0.108 (0.191)			-0.072 (0.235)
	유치원			0.002 (0.195)			0.001 (0.239)
	조부모/친인척			0.231 (0.190)			-0.029 (0.234)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0.617** (0.276)			-0.153 (0.339)
	베이비시터(민간)			0.375 (0.292)			0.263 (0.358)
	반일제이상학원			0.095 (0.289)			0.139 (0.355)
	사설기관(시간제)			-0.403 (0.284)			0.359 (0.349)
	개별/그룹지도, 방문학습지등			0.445* (0.263)			-0.278 (0.323)
육아서비스 이용시간				0.020 (0.021)			0.028 (0.025)
상수		3.575*** (1.010)	4.779*** (1.149)	4.000** (1.568)	7.167*** (1.225)	7.289*** (1.398)	6.218*** (1.925)
Number of Obs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dj R-squared		0.11	0.12	0.16	0.07	0.08	0.10

주 : 1) Reference group : 공공기관 및 공기업.
2) Reference group : 상용근로자
3) Reference group : 전일제
4) Reference group : 고졸 이하
5) Reference group : 기타(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군인 포함)).

* p<.1, ** p<.05, *** p<.01.

( )는 표준편차임.

Ⅵ. 결 론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취업 부모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델 3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제, 출산전후휴가제, 육아휴직제 각각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모(母)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경험은 1.175시간만큼 주중 모(母)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이용경험의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유경험인 경우 주중 모(母)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모(母)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경우, 주중 분석과는 달리 배우자의 시차출퇴근제 이용경험, 배우자의 육아휴직제 이용경험, 사설기관 이용, 육아서비스 이용시간 등이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녀 부(父)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녀 모(母)에 대한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시간정책의 영향을 모델 3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시간근로제가 현 직장에 있을 경우, 자녀돌봄시간에 양(+)의 영향을 준다. 배우자가 단시간근로제나 출산전후휴가제의 유경험자인 경우, 비경험자일 때보다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우자가 재량근로시간제 유경험자일 경우에는 비경험자보다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자녀 부(父)의 주말에 대한 결과에서 시간정책의 효과를 보면, 과거 직장의 경험을 포함하여 단시간근로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출산휴가 유경험과 배우자의 단시간근로제 유경험은 부(父)(남편)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향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모(母)와 부(父) 간에

발생하는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의 차이점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녀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에 있어서 자녀의 모(母)와 부(父) 간에 공통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공통된 변수가 자녀의 모(母)와 부(父)의 자녀돌봄시간에 주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자녀 부(父)의 경우보다 자녀의 모(母)의 경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자녀 부(父)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시간정책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므로 시간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남성의 시간정책 활용 시의 소득보장(지원)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자녀 부(父)의 경우 시간정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있어서 평균 근로시간, 직장유형, 근로시간형태 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자녀 모(母)의 분석결과와 달리, 자녀 부(父)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형태, 평균월소득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부(父)에 대하여 자녀돌봄시간 증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장에 대한 변수, 예를 들어, 산업분류, 사업장규모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는 자녀의 모(母)와 부(父)의 근로시간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돌봄시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 모집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자료의 경우, 응답자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항까지 응답하도록 설문조사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는 본인에 의한 응답이 아니므로 그 정보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기에 향후 조사 설계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영욱(2014).『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pp.16～19.

이지선(2012).『한국 맞벌이,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하다』. LG 경제연구원. pp.23～27.

통계청(2015).「인구주택총조사」.

Becker, Gary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299) : 493～517.

Bloemen, H. G., and E. G. Stancanelli(2014). "Market hours, household work, child care, and wage rates of partners: an empirical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2 (1) : 51～81.

Sousa-Poza, A., Schmid H, R. Widmer(2001). "The allocation and value of time assigned to housework and child-care : An analysis for Switzerland."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 (4) : 599～618.

abstract

Study on Factors Affecting Hours for Childcare among Dual-Income Married Couples

Kim Nayoung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 mothers' or fathers' hours for childcare in dual-income married couples, In general, those parents experience lack of tim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so that they strongly demand for policies to secure their time to do it. The Korea government, therefore, has been establishing various related policies such as flexible working time,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so on.

This study finds how these policies affect their decision on hours for childcare, and verifies which factors affect that decision. To do that, the study uses the survey of 1,035 working fathers or mothers, and analyzes which factors affect their decisions on hours for childcare by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As a result, different factors influence differently on mothers and fathers. So it should be reflected on future policies.

Keywords : childcare, dual-income married couples, hours of childcare